노아가 제단을 쌓다

핵심 구절: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에 두었으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창세기 9:13

선택한 성경 구절:

창세기 8:20-22; 9:8-17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에 감사하며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했습니다. 홍수로 타락한 인류는 멸망했고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뿐이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5) 노아는 성경적으로 깨끗하다고 알려진 동물들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치우친 인간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선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 8:21

우리는 노아의 새 출발에 대한 마음의 열망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평가에 주목합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괴롭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술에 족쇄를 채워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무에서 유'는 신학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를

긍정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3

하나님은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인 원자와 그 모든 변종의 복잡성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들어간 생각의 깊이에 감탄합니다.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인 물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는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두 개를 더하여 액체, 기체, 고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고체 형태인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이 특성이 없다면 지구의 물은 대부분 일 년 내내 얼어붙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신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또한 구름()으로 모여 수백만 파운드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지구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며 아래 땅을 적셔줍니다.

구름이 소중한 비를 내리면 그 사이로 햇빛이 비칩니다. 물방울은 빛을 굴절시키고 다양한

파장으로 분리하여 무지개의 이미지와 화려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설계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18)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무지개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가 구름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9:16,12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베드로후서 3:13) 의가 거하는 땅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10